

어려운 이웃에 장학금 전달 15년



김홍국 씨는 2000년부터 15년 동안 15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사진은 15회 장학금 전달식.



축구선수 박지성 씨에게 선물 받은 축구 슈즈와 공을 경매에 내놓아 블루이웃 돕기 성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홍국의 우끼는 어둠〉 출판기념 사진회.



SBS 라디오 진행 장면



승기원 회원들에게 짜장면 보시하며 웃고 있는 김홍국 씨

들 중에 불자들이 있다면 제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말이죠. 저는 국내 팬들이 우리 선수들 성적을 갖고 비난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실 7회 연속 월드컵에 진출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말이죠. 이제는 제가 안 가면 안 된다는 사명감이 생길 정도로 영원한 대한민국 대표 응원단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축구 응원으로 그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자 새누리당 의원이던 정몽준 씨와 인연을 맺었고 오랜 시간 우정을 다져왔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한때 그에게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가 한창 MBC 라디오 '2시 만세'를 진행하던 중 정치적 이유로 하차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시대 시청률을 장악해오던 MBC가 SBS에서 밀리면서 오후 2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다시 불렀어요. 저는 다른 방송을 접고 MBC로 다시 오게 됐죠. 그런데 느닷없이 개편 시기도 아닌 때에 하차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황당했죠. 저는 다음 개편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시 연예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하차하던 때인지라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하지만 한 명의 정

치인과 오랜 친분이 정치적 입장이 되어 버렸고 그런 이유로 느닷없이 하차 명령을 받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벌였죠."

당시 김 씨는 삭발을 감행했다. 대구 남지장사 주지 각운 스님이 직접 삭발식을 진행해 언론의 화제를 모았다. "주변 사람들이 진행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걱정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저는 결국 삭발을 감행했죠. 기자들한테 앞으로 홍국사 나비 스님이라고 불러 달라고 했어요."

그는 1996년과 1999년 MBC 연기대상 라디오부문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2010년에는 제17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라디오진행상, MBC 라디오 골든 마우스상까지 받을만큼 진행자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렇게 아쉽게 라디오를 떠났지만 지금도 가장 하고 싶은 방송이 라디오 진행이라고 한다. "블교방송 개국 당시에는 108가요라는 가요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후 각종 공중파 라디오에서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라디오는 제 고향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진행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순회하며 교민초청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그는 교민들과 만나 공연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한다. "교민들이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 해주셨어요. 제 노래를 듣고 교국의 향수를 느낀다고 좋아하셨죠." 그는 해외에서도 한국 사찰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곧 고등학생이 되는 제 딸아이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앨버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근처에 절이 없어요. 아내와 딸은 교회는 못가니 사람도 못 사귀고 집에만 있는데 제가 경전 가져다주면 읽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교포들이 갈만한 절이 많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해외에 한국 사찰들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종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불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는 "항상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다"며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냈다. 세해에는 신곡 '불타는 금요일' 로 다시 대중들을 찾아온다는 불자 김홍국 씨는 신곡으로 대한민국을 '불금'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전법일기

종교가 아름다운 이유

성탄절을 앞두고 보은군에 있는 시골 교회에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이 교회의 목사님과 오랜 동안 친교를 나누고 있는 사이다. 몇 해 전 그의 교회를 방문하여 성탄 축사를 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작년 시월초파일에는 우리 절 법당에서 담례 축사를 해주기도 했다. 이전에 살던 절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마다 개신교, 천주교, 유교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축사를 해 주어서 지역 교계에 잔잔한 화제가 되었다. 나 또한 성당의 미사에 초청되어 강연을 한 적도 있으며 그 해 크리스마스에는 절 입구에 성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달기도 했다. 이곳 사찰로 옮겨온 뒤로도 타 종교지도자들과 꾸준히 왕래하며 지낸다. 올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에서도 편견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신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종교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교회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모순이 성립된다. 이런 점에서 사랑과 구원은 교회 밖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절에 나오지 않더라도 복 짓는 행위를 했으면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착한 행위를 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참다운 진리다. 이것은 신앙 이전에 어떤 인과율이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은 도술이나 권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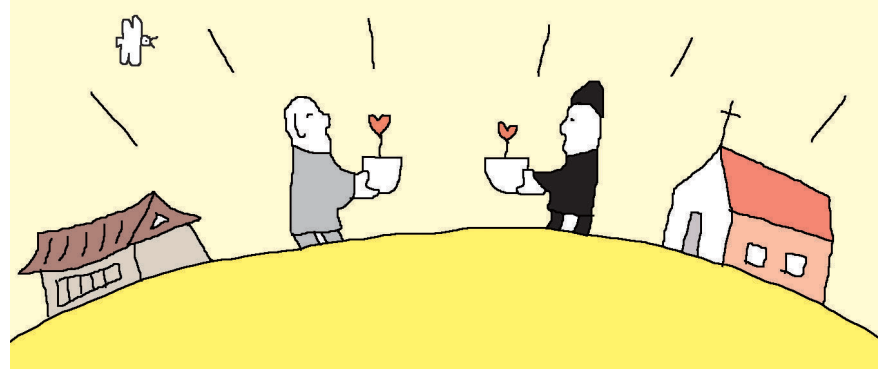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봄에는 시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의 별장에서 연꽃 몇 포기를 얻어 와서 연못에 심었다. 그 목사님은 가을에 이곳에 들러 나를 비빔밥 맛을 보고 갔다. 이렇게 서로 격의 없이 지내는 것은 타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고 싶기 때문이다.

이 아니라 온전한 신식과 원칙이다. 이따금 진리는 절이든 교회든 따지지 않고 통용되어야 마땅하다. 성숙된 종교인의 자세는 우주의 질서에서 동참하면서 보다 따스해지고 선해지는 것이다.

우리 절 앞집은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처음 불사를 할 때 달걀지렁이는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이웃이어서 마주보면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있지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시험 당할까봐서 기독교 방송을 틀기도하고 십자가를 크게 붙이기도 하지만 나와 신도들은 개의치 않고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 우리 쪽이 찬송가 내용이 거슬리듯 그 사람들도 목탁소리와 단청색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다. 그나마 절에 와서 시비를 걸거나 방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삼고 있다. 나는 앞 집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저 상식과 원칙을 지닌 이웃종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 절 앞집은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처음 불사를 할 때 달걀지렁이는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이웃이어서 마주보면 인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있지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시험 당할까봐서 기독교 방송을 틀기도하고 십자가를 크게 붙이기도 하지만 나와 신도들은 개의치 않고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 우리 쪽이 찬송가 내용이 거슬리듯 그 사람들도 목탁소리와 단청색이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서다. 그나마 절에 와서 시비를 걸거나 방해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삼고 있다. 나는 앞 집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저 상식과 원칙을 지닌 이웃종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하고 싶을 뿐이다.



현진 스님 (정원 마야사 주지)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홍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죽동 54번지 www.msjy.co.kr

탱화 청동불상 전문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은당 문성 → 회음당 상근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